재자연화라는 미래 농촌 시나리오



한국농어민신문 2026년 10월 30일자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년 전 영국에서 열린 사토야마(里山·satoyama)를 주제로 한 OECD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사토야마는 마을(里)과 산(山)의 합성어로 자연과 인간이 오랜 세월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경관을 뜻한다. 일본어에서 유래한 용어지만 OECD에서 일반명사처럼 사용할 만큼 보편화되었다. 컨퍼런스에서 주요 화두로 등장한 용어가 'Rewilding', 우리말로 재자연화 또는 재야생화라는 개념이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의 토지이용을 줄이고 생태적 질서를 회복시키자는 환경론자들의 재자연화 주장에 대응하여 각국의 참석자들은 농업이 생물다양성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했고, 특히 커뮤니티에서 수행하는 생태계 관리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감소와 마을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재자연화 논의가 농촌 정주공간의 재편 문제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다. 빈집들이 방치되고 휴경지가 산재한 과소화 마을들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거주지를 한곳에 모으고 나머지 공간을 자연으로 돌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미 일본의 농촌계획학회에서는 소멸 위협에 처한 한계마을들을 비우고 거점공간으로 주거지를 집적하자는 취지로 '철퇴(撤退)의 농촌계획론'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떠나고 마을이 빈다고 그 자리가 저절로 자연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좁은 땅덩어리를 놓고 각종 용도의 토지이용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우리 농촌에서 마을이 비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유해물질 배출 공장 같은 기피시설이 될 수도 있다. 농촌의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일은 마을을 비우는 것으로 해결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유럽 국가들이 생태계 회복과 자연환경 보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강조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활동은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구들장논, 밭담, 대나무숲, 저수지·둠벙 등 오랜 세월 주민들이 유지해온 농업유산 자원들은 역사성과 고유성을 지니며,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부터 주민들이 관리해온 마을 숲, 연못이나 마을 하천 등의 자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마을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농로 개설 등 인프라 공사에 멈추지 않고 주민들이 꽃길을 함께 가꾸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사례들도 있다. 방치된 창고를 개조하여 마을미술관 같은 문화공간으로 만든 사례도 찾을 수 있다. 이렇듯 농

촌의 자연환경과 생태, 경관 가치를 유지하고 높일 뿐 아니라 문화적 색채까지 새롭게 입히는 활동들이 모두 농촌 마을에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농촌 마을이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 농촌정책은 이를 위한 주민 활동을 충분하게 뒷받침하지 못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뒤 중앙정부는 개별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육성하는 일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여러 지자체들 역시 농촌협약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필요한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농촌 소멸론까지 더해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에 굳이 투자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타난다. 농촌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경관, 오랜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마을의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데는 주민과 현장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 마을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활동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마을 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간전략의 일환으로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경우라도 그 과정에는 여전히 마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마을을 비우고 방치하는 것을 재자연화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